

앨범 '원 앤 식스'로 컴백
데뷔 8년차 6인조 걸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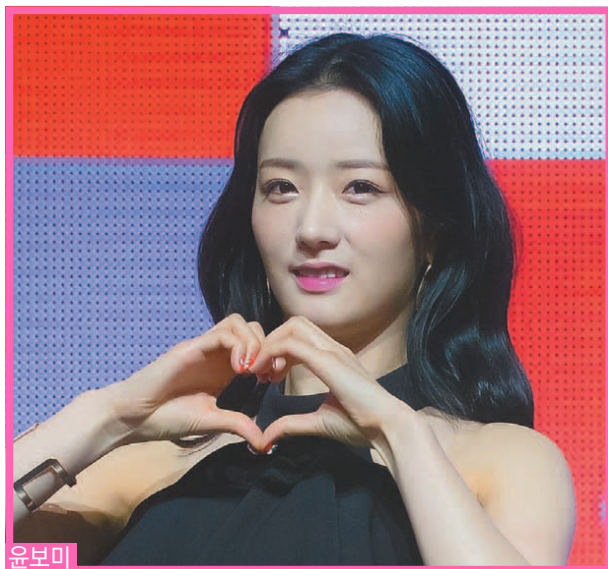
에이핑크



오하영



정은지



윤보미

“데뷔할 땐 베이비 핑크였다면, 지금은 섹시한 핫핑크!”



손나은



박초롱



김남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 바꿨다. 음악적 변화는 물론 그룹 전체 이미지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났다. 데뷔 후 줄곧 ‘청순한 소녀’의 모습으로 사랑받아온 걸그룹 에이핑크(오하영·정은지·윤보미·손나은·박초롱·김남주)가 ‘청순돌’ 콘셉트를 버리고 성숙한 매력으로 중무장했다. 언뜻언뜻 섹시함도 엿보인다. 데뷔 8년차를 맞은 이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다.

2일 오후 서울 광장동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에이핑크의 일곱 번째 미니앨범 ‘원 앤 식스’(ONE & SIX) 쇼케이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기존과 달리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노래와 춤, 의상, 표정, 스타일 등 모든 부분을 바꿨다. 그동안 ‘아련 청순’ ‘힐링 청순’으로 사랑받았다면 이번엔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섹시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에이핑크의 새로운 변화는 소속사 측이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다. 데뷔 연차가 많아질수록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멤버들의 자발적 욕구다.

에이핑크는 새로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핑크 업’ ‘핑크 메모리’ ‘핑크 러브’ 등

의 기존 앨범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핑크’라는 단어를 과감히 버렸다. ‘원 앤 식스’라는 앨범명도 올해 7주년을 맞이한 의미와 함께 여섯 멤버 각각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사실은 변신을 하면서 멤버들조차도 서로 어색해했다. 우리의 평소시 모습이 아니니까 신기했다. 재킷 사진을 촬영하는데 서로 무섭다고 할 정도였다. 그만큼 강렬했다.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이라 ‘세다’고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다. 팬들이나 대중이 에이핑크에게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갑자기 변신한다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고민도 했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목표대로 우리의 색깔을 보여주자고 했다.”

에이핑크를 컬러로 표현하면 이번엔 핫핑크다. 그만큼 강렬하다는 이야기다.

“데뷔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다. 핑크가 하나의 컬러로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지 않다. 데뷔할 때는 가녀리고 여린 컬러의 상징인 베이비핑크였다면 이제는 컬러가 더 진해졌다.”

매년 여름이면 걸그룹 대전이 펼쳐진다.

청순한 이미지 버리고 ‘섹시’ 변신
타이틀 ‘1도 없어’ 중독성 강한 곡
7월 걸그룹 대전? 경쟁보단 축제
7년차 징크스 극복…팀워크 파워



데뷔 8년차를 맞은 에이핑크가 새로운 매력을 위해 과감한 변신을 택했다. 에이핑크는 2일 일곱 번째 미니앨범 ‘원 앤 식스’ 쇼케이스를 열고 “노래, 춤, 의상, 표정 스타일 등 모든 부분을 바꿨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에이핑크는 올해 블랙핑크, 모모랜드, 마마무, 트와이스 등과 경쟁하게 됐다.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그룹 가운데 가장 연차가 많다.

“대전이나 경쟁이라는 생각보다는 같은 걸그룹끼리 주목받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해지다 보면 경쟁보다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색깔이나 콘셉트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다.”

이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는 현재 모모랜드의 곡을 연달아 만들어 히트시키고 있다. 멤버들은 “신사동호랭이와는 워낙 작업을 오래했기 때문에 친하다”면서 “모모랜드의 앨범 나올 때마다 응원을 많이 해줬다. 경쟁이라기보다는 좋은 노래를 취향에 맞게 골라 듣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에이핑크는 이번엔 미쓰에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 트와이스의 ‘치어 업’ 등을 만든 작곡가팀 블랙아이드필승의 ‘1도 없어’를 타이틀곡으로 선택했다. ‘내가 설렘 수 있게’ 이후 두 번째 작업이다. ‘1도 없어’는 중

독성 강한 후크가 돋보이는 곡으로, 한 남자를 사랑했을 당시의 느낌과 감정이 ‘1도 남아 있지 않다’는 심정을 담았다.

이들이라고 욕심이 없는 건 아니다. “여를 대전의 최강자”보다는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도 “성적이 좋아야 한 명이라도 더 우리를 찾아주고 우리의 곡을 들어주시지 않을까”하고 웃었다.

“성적을 생각하지 않고 활동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성적이 좋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이핑크가 하고 싶었던 모습이라 좋게 보겠으면 좋겠다.”

어느덧 에이핑크도 8년차 선배가 됐다. ‘7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데뷔 7주년을 맞은 아이돌 그룹이 멤버 이탈이나 해체와 같은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징크스를 극복했고, 견고한 팀워크마저 자랑한다.

“멤버들끼리 사이도 좋고, 이 시기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찌감치 재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멤버들의 의견이 일찍 모아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변함없는 팀워크도 에이핑크의 장점이지 않을까 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이동욱·수지, 열애 4개월만에 결별

“장근석 19일 입대 보도 사실 아냐”

모모랜드 나윤, 건강 문제로 휴식

영화 ‘범죄도시2’ 15세 관람가 제자

구구단 세정 미나 나영 ‘세미나’ 결성

배우 이동욱(37)과 미쓰에이 수지(24)가 열애 4개월 만에 결별했다. 2일 두 사람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과 JYP엔터테인먼트는 “각자 일정이 바빠 만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헤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인들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3월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해외에서 두 주 묵는 한류스타라 교제 사실이 알려진 뒤 공개석상이나 언론보도에 항상 연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서로 부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사람은 교제 사실이 알려질 당시 두 차례 만난 게 전부였다고 한다. 이동욱은 새 드라마 ‘라이프’에 캐스팅됐고, 수지는 드라마 ‘배가본드’에 출연한다.

한류스타 장근석(31)이 사회복무요원으로 19일 입대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일명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입대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2일 한 매체는 장근석이 19일 입영한다고 보도했다. 1987년생인 장근석은 올해 만 31세임에도 ‘미필’이다. 그동안 입영 관련 질문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장근석은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SBS 드라마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제작발표회에서도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책임감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걸그룹 모모랜드의 멤버 나윤이 건강상 문제로 당분간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모랜드는 당분간 8인체제로 활동한다. 2일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나윤은 최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검사결과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석증은 귀의 안쪽 내이의 반고리관에 발생한 이동성 결석으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증상이다. 소속사는 “나윤은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모랜드는 6월26일 4번째 미니앨범 ‘핀 투 더 월드’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배앰’으로 활동중이다.

지나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범죄도시’의 속편이 제작된다. 2일 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에 따르면 ‘범죄도시2’는 내년 중반 크랭크인 예정이며 전편에 이어 강윤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마동석 이 주연을 맡는다. 전편에서 통쾌한 액션을 보여준 괴물형사 ‘마석도’가 새로운 강력 범죄를 맞닥뜨리는 내용으로 현재 시나리오 작업중이다. ‘범죄도시2’는 15세 관람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범죄도시’는 국내 누적 관객 688만을 동원해 극장 누적 매출액 약 563억원으로 역대 정봉영화 흥행 3위, 역대 부가판권 매출 1위에 올랐다. 특히 수많은 유행어와 패러디도 양산했다.

걸그룹 구구단의 세정 미나 나영이 ‘세미나’로 뭉친다. 세정 미나 나영은 2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심싱 뉴’ 프리퀀 영상을 공개하며 ‘세미나’란 유닛으로 활동한다고 알렸다. 세정 미나 나영의 프리퀀 영상은 2016년 1월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에 젤리피쉬 소속 연습생으로 출연해 니키 야노프스키의 ‘심싱 뉴’를 부른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세미나’는 세정 미나 나영의 이름 첫 글자를 딴 것으로 평범함을 거부하는 독특한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미나’는 10일 첫 싱글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선다.